

2005년 농림부 업무보고

- 머리말 -

개방을 할수록 농업이 어려워 질 것으로 느끼고 있으나, 우리 경제구조상 개방하지 않을 수 없고 통상전략으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개방화에 견딜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하고,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이를 수용할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 달라. 농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각 부처의 지원이 요구된다. 개방하면 농업이 불안하고 개방을 하지 말자고 하면 농림부가 (타부처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제일 어려운 상황에 있다. 부처간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농업농촌특별위원회가 있는 만큼 농특위의 틀을 통해서 정부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도와주기 바란다.

보고에서 ‘현장’ 과 ‘신뢰’ 를 특별히 강조했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현장을 감동시키고 새로운 희망과 확신을 심어주고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농업으로 변하고 농촌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도록 해 달라.

농촌은 지난 40년간 세계 최고의 경제발전을 뒷받침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분들의 노후생활을 정부가 보살펴야 한다. 단순한 농업정책이 아닌 농촌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도시에 살면서도 가보

고 싶은 곳, 5도 2촌(5일은 도시, 2일은 농촌에서 생활)의 생활을 누릴 수 있고 도시의 은퇴자들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과거 농어촌에 62조원의 투융자를 해서 농업·농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지만 일부 누수와 비효율적인 지출이 상징적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성과가 미달된 것처럼 지적을 받고 있다. 119조원 투융자 사업은 사전심사를 면밀히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해 낭비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하라. 농업은 비중이 줄어도 그만큼 해결이 어려운 난제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농촌만큼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하는 곳이 없다. 정부가 정책으로 다듬어 가야 하므로 관련기관을 축소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며 대신 할 일을 제대로 해야 한다.